

아동중심실천연구

Journal of Association Of Child-centered Practice

제16권 제1호

- 초등학생의 방과후 실태 및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학년을 대상으로

----- 노성향

-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방성옥, 안지혜

-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송영애, 이유미

2021년 6월

아동중심실천연구

제16권 제1호 / 2021. 06. 30

논문제목	저자
초등학생의 방과후 실태 및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노성향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방성옥·안지혜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송영애·이유미

초등학생의 방과후 실태 및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노 성 향*

< 요약 >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11차년도(2018년)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현황과 교육현황을 이용실태, 이용비용, 이용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동변인, 부모변인, 가구변인, 사회적 요인 중 아동의 자기보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가구의 82.2%는 아동 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17.8%만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었고, 초등학생의 돌봄 유형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양육이 가장 많았고,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비혈연대리양육자, 초등돌봄교실 순으로 나타나 공적 돌봄기관보다 사적인 돌봄 유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초등학생의 교육서비스 이용 실태는 영어교과목을 교육받는 아동이 가장 많았고 수학, 체육, 국어, 음악, 과학, 한자, 컴퓨터, 미술 순이었다. 예체능 과목은 학원과 교내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관련 교과목은 방과후 교실보다는 학원을 이용하거나, 학습지 또는 가정내 개인지도/그룹지도를 이용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부모와 자녀가 사는 경우보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조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 아동이 자기보호일 가능성이 낮고,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거주보다 아동의 자기보호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취업한 경우보다 아동이 자기보호 아동이 될 가능성이 낮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가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아동이 자기보호가 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이용편리성이 높은 경우, 아동의 자기보호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방과후 서비스에 대해 제안을 하였다.

주제어 : 초등돌봄서비스, 방과후교육, 자기보호

· 논문접수: 2021. 04. 30 / 수정본접수: 2021. 06. 05 / 게재승인: 2021. 06. 11

*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전자: magari@daegu.ac.kr)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857만 8천명, 비취업 여성은 342만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경력단절여성¹⁾은 150만 6천명이다. 경력단절 여성을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자녀수가 2명인 경우가 60만 5천명(48.7%)으로 가장 많고, 자녀의 연령은 6세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76만 5천명, 61.6%).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42.5%), 결혼(27.5%), 임신·출산(21.3%), 가족돌봄(4.6%), 자녀교육(4.1%)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은 자녀양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영유아 무상보육이 실현되었고 영유아보육은 가족의 영역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의 학교수업 시간 이외의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방과후돌봄서비스란 아동 또는 청소년들의 학교 수업시간 이후 일상생활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욕구를 보완해 주는 서비스이다(노성향, 2014).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학교교육이 끝난 방과후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아동의 학습과 심신의 발달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서영숙 외, 201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고학년 아동 대상, 여성가족부),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보건복지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에 따라 명칭상이: 키움센터, 온종일돌봄센터)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등돌봄은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온종일 돌봄체계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온종일 돌봄체계는 방과 후에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편한 학교와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흥미·적성·진로를 고려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6,117개 학교, 1만 3,910개의 돌봄교실에서 29만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지만 2020년에는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국고를 지원해 2020학년도까지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해 1만4000명이 증가한 30만 4,000명의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고, 2022년까지 34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8).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은 2022년 19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중이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초등돌봄이 가능한 인원을 53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돌봄 기관에서 수용가능한 인원은 2020년 전국 초등학생 수 전체 대비 19.6% 수준이다.

1) 통계청에서는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비취업자를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한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초등돌봄에 대한 실태나 요구에 대한 연구(김선혜, 2015; 김은정, 장수정, 2020; 김영란 외, 2018; 김종호, 심영미, 2015; 박화옥, 김민정, 2014; 양윤이, 이태연, 2016; 장명립 외, 2018; 정현용, 2018; 조영희, 2014) 또는 초등돌봄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선숙, 임세희, 2018; 조은정, 2012; 천희영, 2014) 등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방과후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보호자가 없이 혼자 지내는 자기보호 시간 동안 다양한 사회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가 있고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자기보호와 관련된 연구 또한 다양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변인, 부모변인, 가구변인, 사회적 변인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취업이나 아동을 돌봐줄 수 있는 성인의 유무가 아동의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친다(이재희, 2018; 임혜정, 2017; 정선영, 2015; 정혜련, 2016; Casper. & Smith, 2004; Lopoo, 2005). 아동과 부모관련 변인 중 아동의 성별이나 형제자매 수에 따라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고 부모변인 중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기보호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Mack, Dellinger, & West, 2012).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 이상의 방과후 실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까지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호 연구가 필요하다.

2003년 UN 아동권리 협약 제2차 국가 보고서 심의에서 우리나라는 방과후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그동안 방과후 돌봄의 주된 대상이었던 저소득층 아동뿐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방과후 돌봄이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었다.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이 선별적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학교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이용대상 아동의 연령, 서비스 수혜 대상 아동의 가정환경조건, 소관 부처 등이 달라 효율적인 기관운영과 수요와 공급에 적절한 서비스제공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초등돌봄에 대한 인프라의 부족은 학원이나 학습지 등과 같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성인의 돌봄 없이 방과후시간을 보내는 자기보호 아동이 늘어나게 한다. 과도한 사교육 의존은 개별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자기보호 아동은 자신감의 결여,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노성향, 2014; 서영숙 외, 2014).

아동의 방과후 시간 활용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맞벌이 가정의 부모는 자녀가 가정적이고 편안한 교육적 환경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하고 있다(양애경, 조호제, 노신민, 2008). 초등학생의 방과후 시간관리는 아동의 발달 뿐 아니라 안전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과 교육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초등학생의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고학년이 시작 되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방과후돌봄, 교육 실태와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실태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현황과 교육현황을 이용 실태, 이용비용, 이용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돌봄이나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자기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여 초등 돌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돌봄현황(이용실태, 비용, 만족도)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 현황(이용실태, 비용, 만족도)은 어떠한가? 셋째, 아동변인, 부모변인, 가구 특성, 사회적 요인 등은 아동의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자료를 활용했다.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함으로써,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및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의 영향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11차년(2018)도 자료 중 결측치를 제외한 1,384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이상(44.2%), 어머니의 나이는 40대(64.6%)가 가장 많고, 어머니의 55.5%가 취업상태이고, 주중 근무일은 일주일에 5일이 90.8%로 가장 많다. 조사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중소도시가 54%로 가장 많고 가구구성 형태는 부모와 자녀가 88.4%로 가장 많고, 가구소득은 300-500만원이 48.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여자 680명(49.1%), 남자 704명(50.9%)이고 아동이 하루 중 성인 없이 보내는 시간은 1시간 미만(34.1%), 1-2시간(22.9%)순이고 2시간 이상 혼자 있다고 응답한 아동도 전체 응답자의 19.7%였다. 조사 가구의 82.2%는 아동 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고 17.8%만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노성향/ 초등학생의 방과후 실태 및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N=1,384)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아동 성별	여자	680	49.1	가구 거주 지역규모	대도시	555	40.1	
	남자	704	50.9		중소도시	747	54.0	
				읍·면	82	5.9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5	0.4	가구 구성 형태	부모+자녀	1,224	88.4	
	고졸	365	26.4		부모+자녀+친척	7	0.5	
	2-3년제 대졸	402	28.0		조부모+부모+자녀	100	7.2	
	4년제 이상	612	44.2		조부모+부모+자녀 +친척	51	3.7	
					기타	2	0.1	
어머니 나이	30-39세	472	34.1	가구소득	290만원 이하	82	5.9	
	40-49세	894	64.6		300-500만원	666	48.1	
	50세 이상	18	1.3		500-800만원	398	28.7	
					800 - 1,200만원	82	5.9	
					1,200만원 이상	23	1.6	
					무응답	133	9.6	
어머니 취업 상태	취업	768	55.5	하루 중 성인 없이 보내는 시간	없음	322	23.3	
	학업	3	0.2		1시간 미만	472	34.1	
	취업/학업	36	2.6		1-2시간 미만	317	22.9	
	미취업/미학업	577	41.7		2-3시간 미만	173	12.5	
					3-4시간 미만	50	3.6	
어머니 주중 근무일 (N=781)	1일	6	0.8	돌봄 이용 유형	이용하지 않음	1,137	82.2	
	2일	6	0.8		이용함			
	3일	25	3.2					
	4일	35	4.5					
	5일	709	90.8				262	17.8

2. 변수설정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뒤 자녀 특성, 어머니 특성, 가구 특성, 사회적 특성 등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사용했던 아동의 특성 중 아동의 나이는 동일연령을 대상으로 조사된 본 연구의 특성상 제외하고, 성별을 투입했다. 어머니 특성은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나이를 살펴보았는데,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으로 나누었고, 취업 여부도 미취업과 취업으로 나누어 명목변수로 투입하였고, 나이는 연속변수로 투입했다. 가구 특성은 가구구조, 가구소득을 포함했는데, 가구구조는 부모와 자녀 함께 거주와 부모, 자녀, 조부모 함께 거주로 나누었고, 가구소득은 자연로그를 취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했다. 사회적 특성은 거주지역, 교육기관 이용만족도, 교육기관 지역 편리성을 살펴보았는데, 거주지역은 대도시를 기준범주로 하여 중소도시, 읍면지역과 비교해서 살펴보았고, 교육기관 이용만족도와 교육기관 지역편리성은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기보호 여부로 자기보호와 성인보호로 구성되며, 자기보호 아동을 나눈 기준은 2011년 시행된 여성가족부의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안전 현황 조사’의 정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보호 아동은 ‘일주일 1일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하여, 하루 중 성인 없이 보내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아동을 자기보호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표 2> 독립변수, 종속변수 정의

변수구분	변수	변수정의
독립변수	아동 성별	여자(0), 남자(1)
	가구구성 형태	부모+자녀(0), 조부모+부모+자녀(1)
	가구소득	자연로그값 연속변수
	모 교육수준	고졸 이하(0), 전문대졸 이상(1)
	모 취업	미취업(0), 취업(1)
	모 나이	연속변수
	거주지역	중소도시, 읍면(0), 대도시(1)
	교육기관 이용만족도	연속변수
	교육기관 지역 편리성	연속변수
종속변수	자기보호	성인보호(0), 자기보호(1)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가 0.7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초등학생의 돌봄현황과 초등학생의 교육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다중응답변수군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구했다. 둘째, 로짓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독립변수가 아동의 자기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1. 초등학생의 방과후 실태

1)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현황

초등학생의 학기중 돌봄유형은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양육(73.3%)이 가장 많았고, 지역아동센터(15.3%), 초등돌봄교실(5.0%), 비혈연대리양육자(3.8%)순이었고, 방학중 돌봄유형 또한 학기중과 유사하여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양육(84.7%)이 가장 많았고, 지역아동센터(13.5%), 비혈연대리양육자(4.2%), 초등돌봄교실(3.1%)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위한 공적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보다는 사적인 돌봄 유형을 월등히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아동 돌봄 및 양육 이용실태

구 분	학기중	방학중
	N(%)	N(%)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192(73.3)	224(84.7)
비혈연 대리양육자	10(3.8)	12(4.2)
아이돌보미	4(1.5)	4(1.4)
초등돌봄교실	13(5.0)	9(3.1)
지역아동센터	40(15.3)	39(13.5)
기 타	3(1.1)	0(0)
전 체	262(100)	288(100)

초등학생의 학기중 돌봄 이용비용은 비혈연 대리양육자가 평균 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이돌보미 44.5만원,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이 27.5만원이지만 초등돌봄교실 평균 2.4만원, 지역아동센터 7천원으로 나타났다. 방학중 돌봄 이용비용은 아이돌보미가 평균 44.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혈연대리양육자가 평균 38.8만원,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이 22.5만원, 초등돌봄교실 1.4만원, 지역아동센터 7천원 나타났다. 사적돌봄 유형을 이용하는 비용보다 공적돌봄 유형을 이용하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게 나타났지만, 공적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이 많지 않고 70%이상 사적돌봄 유형을 선택하고 있어, 부모의 돌봄비용 지출이 부담이 될 수 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아동이 비용이 저렴한 공적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돌봄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4> 아동 돌봄 및 양육 이용비용 단위: 만원

	학기중(월평균)			방학중(월평균)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대	평균	표준편차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180	27.5	37.1	180	22.5	33.2
비혈연 대리양육자	120	46.0	42.3	120	38.8	41.3
아이돌보미	160	44.5	77.2	160	44.5	77.2
초등돌봄교실	10	2.4	4.0	10	1.4	3.4
지역아동센터	8	0.7	1.8	5	0.7	1.7
기타	90	30	51.9			

초등학생의 학기중 아동돌봄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은 응답자의 90%가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비혈연 대리양육은 응답자 모두가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아이돌보미는 응답자의 75%, 초등돌봄교실은 92.3%, 지역아동센터는 95%가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표 5> 아동 돌봄 및 양육 이용 만족도(학기중) N(%)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비혈연 대리양육자	아이돌보미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매우 불만족	1(0.5)	-	-	-	-
대체로 불만족	2(1.0)	-	-	-	-
보통	16(8.3)	-	1(25.0)	1(7.7)	2(5.0)
대체로 만족	88(44.3)	6(60.0)	-	8(61.5)	20(50.0)
매우 만족	88(45.8)	4(40.0)	3(75.0)	4(30.8)	18(45.0)
전체	192	10	4	13	40

노성향/ 초등학생의 방과후 실태 및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등학생의 방학중 아동돌봄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은 응답자의 88%가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비혈연 대리 양육은 응답자의 92.6%가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아이돌보미는 응답자의 75%, 초등돌봄교실은 88.8%, 지역 아동센터는 89.4%가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표 6> 아동 돌봄 및 양육 이용 만족도(방학중) N(%)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비혈연 대리양육자	아이돌보미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매우 불만족	1(0.4)	-	-	-	-
대체로 불만족	3(1.3)	-	-	1(11.1)	-
보통	23(10.3)	1(8.3)	1(25.0)	-	4(10.3)
대체로 만족	88(39.3)	7(58.3)	1(25.0)	4(44.4)	17(43.6)
매우 만족	109(48.7)	4(33.3)	2(50.0)	4(44.4)	18(46.2)
전체	224	12	4	9	39

2)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 현황

초등학생의 교육서비스 이용실태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영어수업을 듣는 아동(1,134명)이 가장 많았고 수학(980명), 체육(882명), 국어(685명), 음악(631명), 과학(432명), 한자(296명), 컴퓨터(294명), 미술(290명)순이었다. 아동의 교육서비스 이용실태를 교육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악은 학원(63.5%)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학교내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교실(20.4%)순이었고, 미술은 학원 이용(54.5%), 학교내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교실(22.4%)순이었고, 체육은 학원이용(65.6%), 학교내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교실(16.7%)순으로 아동 대부분이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과목은 학원과 교내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은 학원 이용(23.4%), 학습지(23.1%), 학교내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교실(21.5%)순이었고, 수학은 학원 이용(38.9%), 학습지(31%), 가정내 개인지도(14.5%)순이었고, 영어는 학원 이용(60.5%), 학습지(12.1%), 학습지(9.0%)순으로 나타났다. 과학, 수학, 영어와 같은 과목은 학원을 이용하는 것만, 학습지를 이용하거나 가정내 개인지도 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국어는 학습지(41.2%), 학원 이용(26.9%), 가정내 개인지도(16.9%)순이었고, 한자는 학습지(59.5%), 교내방과후 교실(14.9%), 학원 이용(9.8%), 가정내 개인지도(9.1%)순으로 나타나, 국어와 한자는 학습지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컴퓨터는 교내 방과후 교실이 87.4%로 대부분이고 학원이용(4.4%)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 아동 교육서비스 이용 기관 N(%)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수학	국어	컴퓨터	한자	영어
학원	401 (63.5)	158 (54.5)	579 (65.6)	101 (23.4)	381 (38.9)	184 (26.9)	13 (4.4)	29 (9.8)	686 (60.5)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	57 (9.0)	36 (12.4)	28 (3.2)	58 (13.4)	142 (14.5)	116 (16.9)	5 (1.7)	27 (9.1)	102 (9.0)
학습지	1 (0.2)	4 (1.4)	1 (0.1)	100 (23.1)	304 (31.0)	282 (41.2)	6 (2.1)	176 (59.5)	137 (12.1)
인터넷/ 화상 강의	3 (0.5)	2 (0.7)	0 (0)	58 (13.4)	69 (7.0)	87 (9.8)	7 (2.4)	14 (4.7)	85 (7.5)
교내 방과후 교실	129 (20.4)	65 (22.4)	147 (16.7)	93 (21.5)	57 (5.8)	11 (1.6)	257 (87.4)	44 (14.9)	101 (8.9)
사설 기관 교육	21 (3.3)	12 (4.1)	73 (8.3)	5 (1.2)	7 (0.7)	7 (1.0)	0 (0)	1 (0.3)	10 (0.9)
공공기관 교육	19 (3.0)	13 (4.5)	54 (6.1)	17 (3.9)	20 (2.0)	18 (2.6)	6 (2.0)	5 (1.7)	13 (1.1)
전체	631	290	882	432	980	685	294	296	1,134

초등학생의 교육서비스 이용시간은 학원, 공공기관 교육, 교내방과후 교실, 가정내 개인/그룹지도의 경우 최대 시간이 주당 20시간이었고, 평균 이용시간은 학원(8.41시간)이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교육(4.01시간), 교내방과후 교실(3.68시간), 가정내 개인/그룹지도(3.56시간)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아동교육서비스 이용 시간(일주일)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학원	1,153	1	20	8.41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	323	1	20	3.56
학습지	461	1	13	1.48
인터넷/화상 강의	139	1	14	2.97
교내 방과후 교실	630	1	20	3.68
사설 기관 교육	116	1	15	3.15
주민 센터 등 공공기관 교육	101	1	20	4.01

초등학생의 교육서비스 이용비용은 학원, 사설 기관 교육, 가정내 개인/그룹지도의 경우 최대 비용이 월 200만원이었고, 평균 이용 비용은 학원(32.96만원)이 가장 많았고, 가정내 개인/그룹지도(18.03만원), 학습지(11.11만원), 사설기관 교육(10.09만원)순으로 나타났다.

노성향/ 초등학생의 방과후 실태 및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9> 아동 교육서비스 이용비용 단위: 만원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학원	1153	0	200	32.96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	323	0	200	18.03
학습지	461	0	45	11.11
인터넷/화상 강의	139	0	30	8.62
교내 방과후 교실	630	0	73	6.01
사설 기관 교육	116	0	200	10.09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교육	101	0	20	3.59

초등학생의 교육서비스 이용만족도는 학원은 응답자의 88.6%가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가정내 개인/ 그룹지도는 응답자의 86.3%, 학습지는 응답자의 78.8%, 인터넷 화상강의는 77.6%, 교내 방과후 교실은 87.8%, 사설기관교육 89.7%, 공공기관교육 85.1%의 응답자가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0> 아동 교육서비스 이용만족도 N(%)

	학원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	학습지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사설 기관 교육	공공 기관 교육
매우 불만족	1(0.1)	1(0.3)	-	-	1(0.2)	-	1(1.0)
대체로 불만족	4(0.3)	2(0.6)	6(1.3)	-	6(1.0)	3(2.6)	2(2.0)
보통	127(11.0)	41(12.7)	92(20.0)	31(22.3)	70(11.1)	9(7.8)	12(11.9)
대체로 만족	869(75.4)	223(69.0)	305(66.2)	90(64.7)	436(69.2)	88(75.9)	66(65.3)
매우 만족	152(13.2)	56(17.3)	58(12.6)	17(12.9)	117(18.6)	16(13.8)	20(19.8)
전체	1,153	323	461	139	630	116	101

2. 아동의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Hosmer-Lemeshow 적합통계량 검정, 로그우드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군이 모두 투입된 모형(Modelfull)의 로그우도는 1716.212로 나타났고, 관측빈도와 예측빈도의 차이에 대한 Hosmer-Lemeshow 적합통계량 검정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8=11.97, $p=.152$). 이를 통해 본 연구모형은 실제자료에 잘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인 독립변수의 계수 값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구성 형태 ($B=-.600$, $p<.01$), 거주지역($B=-.349$, $p<.01$), 어머니 취업유무($B=1.399$, $p<.001$), 어머니 교육수준($B=-.547$, $p<.001$), 접근 편리성($B=-.193$,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들 변수 이외에 아동성별, 어머니 연령, 가구수입, 이용만족도 등의 변인은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하게 나온 독립변수들의 승산비(odds rati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가구관련 변인은 가구구성원 중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아동이 자기보호가 될 승산이 .549배 감소하고($OR=.549$),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중소도시 이하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아동이 자기보호 아동이 될 승산(odds)은 .706배 감소한다($OR=.706$). 어머니 관련 변인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아동이 자기보호 아동이 될 승산은 4.025배 증가하고($OR=4.025$),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이상인 경우 고졸인 집단에 비해 아동이 자기보호가 될 승산은 .579배 낮다($OR=.579$). 사회적 변인 중 지역사회 기관이용 편리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왔는데, 지역사회에 교육, 의료, 복지시설이 접근하기에 편리한 곳이 있으면 지역사회 편리성이 낮은 경우에 비해 아동이 자기보호 아동이 될 승산은 .82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R=.825$).

<표 11> 아동 자기보호 결정 요인

	<i>B</i>	<i>SE</i>	<i>p</i>	OR
아동성별	.056	.116	.629	1.058
가구 구성형태	-.600**	.190	.002**	.549**
거주지역	-.348**	.119	.004**	.706**
어머니 취업유무	1.393***	.124	.000***	4.025***
어머니 연령	.014	.016	.375	1.015
어머니 교육수준	-.547***	.133	.000***	.579***
가구 수입	.007	.016	.647	1.007
접근 편리성	-.193*	.076	.011*	.825*
이용만족도	.047	.055	.395	1.048
상수항	-.790	.701	.260	.454
Hosmer-Lemeshow 적합통계량	$\chi^2(8) = 11.97, p = .152$			
로그우도(log likelihood)	Modelfull = 1716.212			
Nagelkerke R-제곱	Adjusted $R^2 = .155$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현황과 교육현황을 이용실태, 이용비용, 이용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동변인, 부모변인, 가구변인, 사회적 요인 중 아동의 자기보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돌봄현황(이용실태, 비용, 만족도)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 현황(이용실태, 비용, 만족도)은 어떠한가? 셋째, 아동변인, 부모변인, 가구 특성, 사회적 요인등은 아동의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별로 분석한 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조사 가구의 82.2%는 아동 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17.8%만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의 돌봄 유형은 학기중과 방학중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학기중 돌봄유형은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양육이 가장 많았고,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비혈연대리양육자순이었고, 방학중 돌봄유형 또한 학기중과 유사하여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양육이 가장 많았고, 지역아동센터, 비혈연대리양육자, 초등돌봄교실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많지 않고, 공적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보다 사적인 돌봄 유형을 월등히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적인 돌봄이 공적 돌봄보다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 또한 높게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다양한 부처에서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비율이 매우 작게 나타났다. 이는 공적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공적돌봄서비스의 정원이 얼마나 채워지는지, 공적돌봄서비스의 이용과정은 용이한지 등을 점검하여, 실제 수요자인 아동이 이용하기 쉬운 아동중심 공적돌봄서비스로 개편되어야 됨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동안 다양한 돌봄서비스 기관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돌봄기관의 양적 확장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기존의 돌봄기관은 새로운 형태의 돌봄기관인 다함께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보다 촘촘한 서비스제공을 해야 할 것이다. 돌봄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조부모 및 기타양육의 경우 개별 가정에 아동 돌봄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조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발달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교육하고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미 많은 지자체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영유아와 관련된 양육(세살마을연구원 조부모교육, 여성가족부 부모교육자료실,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손자녀와 소통하는 놀이교실)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초등학생 돌봄에 도움이 되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에 대한 교육,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초등학생의 돌봄 이용비용은 학기중 기준 비혈연 대리양육자, 아이돌보미가 각각 46만원

44.5만원이고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이 27.5만원, 초등돌봄교실 평균 2.4만원, 지역아동센터 7천원으로 나타나 부모의 돌봄비용 지출이 부담될 수 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아동에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양적 확대중인 공적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돌봄 서비스 체계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둘째, 초등학생의 교육서비스 이용실태는 영어 교과목을 교육받는 아동이 가장 많았고 수학, 체육, 국어, 음악, 과학, 한자, 컴퓨터, 미술 순이었다. 아동의 교육서비스 이용실태를 교육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악, 미술, 체육은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교내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교실순으로 나타나 아동 대부분이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과목은 학원과 교내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컴퓨터는 교내 방과후 교실이 87.4%로 대부분이고 학원이용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부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한 교육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과학, 수학, 영어와 같은 과목은 학습관련 교과목은 방과후 교실보다는 학원을 이용하거나, 학습지 또는 가정내 개인지도/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고, 국어와 한자는 학습지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의 교육서비스 평균 이용시간은 학원(8.41시간)이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교육(4.01시간), 교내방과후 교실(3.68시간), 가정내 개인/그룹지도(3.56시간)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은 학원, 사설기관 교육, 가정내 개인/그룹지도의 평균 이용 비용은 학원(32.96만원), 가정내 개인/그룹지도(18.03만원), 학습지(11.11만원), 사설기관 교육(10.09만원)으로 공적교육 기관인 교내방과후 교실(6.01만원), 공공교육서비스(3.59만원) 보다 많게 나왔다. 이런 결과는 2020년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서울과 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 등 지방 광역시 거주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평균적으로 2.3개 학원에 다니며 영어 과목을 가장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 한 명에게 쓰는 월평균 총 사교육비는 30만~50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수강 과목(중복 응답)으로는 영어가 가장 많았으며, 수학, 피아노, 미술, 태권도, 기타과목, 논술·토론이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2020년 3월 8일 기사). 대부분의 부모는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액이 '부담스럽다'라고 지각하고 있는데, 이용만족도 수준이 비슷하게 나왔으나 비용은 큰 차이가 나타나므로 비용도 저렴하고 만족도도 높은 교내방과후 교실이나 공공교육기관을 활용해서 방과후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의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동 특성, 어머니 관련 변인, 가구 특성, 사회적 변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구구성 형태, 거주지역, 어머니 취업유무, 어머니 교육수준, 접근 편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 형태는 부모와 자녀가 사는 경우보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아동이 자기보호일 가능성이 작고,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거주보다 아동의 자기보호 가능성이 작다. 어머니의 특성과 관련해서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가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보다 아동이 자기보호 아동이 될 가능성이 작고, 어머니가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어머니가 고졸이하의 교육수준인 경우보다 아동의 자기보호가 될 가능성이 작다. 교육, 의료, 복지시설이 접근하기에 편리한 곳이 있으면 아동이 자기보호 아동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보호는 우울과 불안, 위축, 주의집중 부족 등의 내현화 문제와 공격성과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이봉주, 조미라, 2011), 아동의 정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정춘식, 2014),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조형정, 윤지영, 2015),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취업은 아동의 자기보호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어머니의 취업으로 자기보호 상태가 된 아동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인터넷게임 중독 가능성이 높아지고(박현숙, 권윤희, 박경민, 2007), TV 시청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정선영, 2013) 선행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한부모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자기보호 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적절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봄 공백 상태인 자기보호 아동을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운영주체가 다양하고 대상 아동이 중복되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가장 필요한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방과후 돌봄이용 실태와 방과후 교육기관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방과후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한된 요인만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횡단적 접근을 통해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는데,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이르는 종단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방과후 이용 서비스를 살펴보는 연구도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방과후 돌봄 유형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으나 패널데이터의 한계로 유형별 분포가 정상분포가 고르지 않아 집단간 차이를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방과후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조사를 하여 돌봄유형에 따른 아동발달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숙, 임세희(2018). 지역사회 및 가구의 특성이 아동의 방과 후 시간사용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 논문집**, 11, 185-199.
- 김선혜(2015).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목적 논의: 공공성과 아동 자기결정의 자유에 근거하여. **한국초등교육**, 26(4), 515-535.
- 김영란, 조선주, 선보영, 배호중, 김진석, 정영모(2019). **초등학생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 김은정, 장수정(2020). 초등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분석-보편적 서비스 관점에서. **한국가족복지학**, 67(2), 31-59.
- 김종호, 심영미(2015).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실태 및 만족도 비교 연구: 의정부시, 고양시, 연천군의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지**, 25(1), 399-419.
- 노성향(2014). **방과후아동지도**. 양서원.
- 박화옥, 김민정(2014). 대리 양육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손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 행동의 매개 효과. **사회과학연구**, 40(3), 149-167.
- 박현숙, 권윤희, 박경민(2007).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7(5), 754-761.
- 보건복지부(2018). **다함께돌봄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자료집**.
- 서영숙, 서혜진, 이향란, 김현자, 노성향, 안소영, 양윤이, 김진숙(2014). **방과후 아동지도**. 양서원.
- 양애경, 조호재, 노신민(2008). 초등 방과후 보육 교실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 2(2), 18-37.
- 양윤이, 이태연(2016).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영역별 지향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아동교육**, 25(3), 211-228.
- 이봉주, 조미라(2011).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 7-27.
- 이재희(2018). 초등자녀 방과후 돌봄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2), 1-17.
- 임혜정(2017).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과 교육적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27(4), 137-169.
- 장명림,이희현,조진일,최형주,임봉조,강지원,김선미,장지혜,김영란,조선주,배호중(2018). **학생 학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초등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23-01.
- 정선영(2015). 방과후 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자기보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6), 51-63.
- 정춘식(2014).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이 이후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용(2018). 초등 1~4학년 오후 3시 하교, <http://www.seoul.co.kr/new>에서 인출
- 정해련(2016). 가구소득에 따른 자기보호 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 사용 양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희(201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141-162.
- 조은정(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 방식과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의 매개 효과. **놀이치료연구**, **15(1)**, 35-50.
- 조형정, 윤지영(2015). 초등 고학년의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4(1)**, 157-187.
- 천희영(2014).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 방과 후 보호, 가정환경과 자기 조절 학습능력 및 정서·행동 문제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6)**, 265-289.
- Casper, L.M., & Smith, K.(2004). Self-care: Why do parents leave their children unsupervised? *Demography*, *41(2)*, 285-301.
- Lopoo, L. M.(2005). Maternal Employment and Latchkey Adolescents. *Social Service Review*, *79(4)*, 602-623.
- Mack, K. A., Dellinger, A., & West, B. A.(2012). Adult opinions about the age at which children can beleft home alone, bathe alone, or bike alone:Second Injury Control and Risk Survey. *Journal of Safety Research*, *43(30)*, 223-226.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 세살마을연구원 조부모교육 <https://seoul.childcare.go.kr/>
- 여성가족부 부모교육자료실 <http://www.mogef.go.kr>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통계청 <http://kostat.go.kr/>

ABSTRACT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ter-School Status and Factors Affecting Self-Care of Children

Rho, Sung Hya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after-school servic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age status, usage cost, and usage satisfaction) and factors affecting self-care of children, using data from the 11th year (2018)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The results of the study, which analyzed the data using the SPSS 24.0 program, are as follows. First, 82.2% of the surveyed households did not use child care, but only 17.8% used after-school care. As caring for grandparents and other relatives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s care, private care is more used than public care. Second, as for the use of educational services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ost common children were educated in English subjects, followed by math, physical education, Korean, music, science, Chinese characters, computers, and art. For arts and sports subjects, it was found that academy and after-school classrooms were used, and for learning-related subjects, the ratio of using academy or using study papers or home tutoring/group guidance was also higher rather than after-school classrooms.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self-care, children are less likely to be self-care when 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 live together than when parents and children live. Children's self-care possibility was lower than that of living in towns and villages. If the mother is a full-time housewife, the child is less likely to become a self-protective child than if the mother was employed. Based on these findings, a suggestion for after-school servic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made.

Key Words: after-school services, self-care, after-school care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방 성 옥*

안 지 혜**

< 요약 >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심리적소진, 조직몰입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 보고,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지역의 보육교사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 특성과 각 변인 간 관계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내면적 행동은 조직몰입의 모든 하위요인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심리적소진 하위요인 중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는 조직몰입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소진 하위요인 중 성취감 감소는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 소진 감소를 위한 개인적 차원의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회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조직몰입을 꾀하고 조직몰입을 위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어질 것이다.

주제어: 보육교사, 감정노동, 심리적소진, 조직몰입

· 논문접수: 2021. 04. 30 / 수정본접수: 2021. 06. 05 / 게재승인: 2021. 06. 11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국립목포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 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jhahn0326@mokpo.ac.kr)

I. 서론

현대사회는 조직사회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에 소속되어 살아간다. 조직은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이라나, 2003), 변화와 경쟁구도 속에서 조직구성원의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하여 조직몰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조직몰입을 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제34조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 조직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러한 목적의 성취를 위한 교육환경과 직무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한 종류의 조직이다. 따라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도모하는 보육교사는 조직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을 요구받고 있다.

이처럼 조직효율성 증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 등과 같은 객관적 근무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기관 및 기관목표에 대해 스스로가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려는 조직몰입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주관적 환경에서의 인적관리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김영숙, 정명선, 2014).

조직몰입이란 조직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자신을 고용한 조직을 향해서 느끼는 애착수준을 의미하며, 보육교사에게 있어 조직몰입은 교사들이 어린이집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어린이집에 일체감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를 가지며, 계속 근무하려는 욕구를 말한다(고광혁, 2011). 조직몰입은 보육교사로 하여금 어려운 업무 수행도 보육교사 자신의 일로 여겨 극복하려 하게 만든다. 반면 보육교사가 조직몰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육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 및 보육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운성, 홍아정, 2016).

보육교사의 경우 영유아와의 정서적 교류는 필수적이며, 이때 교육적으로 영유아에게 적합하고 교사 주도가 아닌 영유아 중심으로 모든 역할수행과 그에 따른 감정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정명선, 2014). 직무특성 상 보육교사는 감정노동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며 실제로 국내 감정노동의 직업별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감정노동을 많이 일으키는 직업 30선 중 감정노동에 대한 점수가 5점 만점에서 유치원교사는 4.13점으로 24위, 보육교사는 4.12점으로 28위를 차지해 감정노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확인할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또한 연일 보고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 모든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보육교사들의 감정노동은 가중되고 있다(정경진, 윤혜미, 2016). 많은 교사들은 육체노동 및 정신노동과 더불어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노동인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강상, 류경희, 2016). Morris & Fieldsman(1996)은 감정부조화는 종사자가 이러한 부조화를 수용할 능력을 소진하게 만들어 점차 감정적 고

갈(emotional exhaustion)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감정적 고갈은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조직몰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보육교사가 사회적 요구조건이나 학부모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때 조직 내 정서 규칙에 따라 개인의 정서를 조절하고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감정노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주영, 2016; 황혜정, 2019).

이러한 감정노동은 종사자 개인 자신의 감정보다는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표현으로 감정부조화(emotional dissonance)가 일어나고 이는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소진으로 이어진다(Adelman, 1995). 보육교사는 긴 근무시간과 복합적 요건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느낀 내면의 감정과 외현화된 감정의 불일치, 원치 않는 감정의 표현(정명선, 2014), 고도의 정신노동에 노출됨으로써 그 어떤 직종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심신의 소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게 현실이다.

소진은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비롯되는 생리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상태를 말한다(Pine & Aronson, 1998). 소진의 상태 중에서 심리적소진은 서비스 관련 업종과 같이 주로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업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과 같이 대인관계를 주 기반으로 하는 업종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교사의 심리적소진은 교사 본인의 의욕과 자존감,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함께하는 아동의 발달 및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Brown & Roloff, 2011)에서 다른 직업의 소진과 차이점이 있다. Maslach와 Jackson(1981)은 심리적소진으로 인해 교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갈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사가 소진되면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두통이나 불면증 등의 불편한 신체적 증상을 보일 수 있다(Schonefold, 2001). 또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기계적이고 냉소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활동에 소홀해지기 쉽고(Whitebook & Granger, 1989), 동료교사나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정덕희, 2015; Yong & Yue, 2007). 보편적으로 보육교사의 소진 정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 직무의 특성상 소진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유미나, 신나리, 2013).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보육교사일수록 높이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가 낮고(김송이, 2015), 행복감이 저하되며(차정주, 이효림, 2015), 현재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싶은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났다(배성희, 김연화, 한세영, 2014). 또한 경력몰입정도(윤희미, 노필순, 2013)와 보육교사직을 전문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김은숙, 오현경, 2013) 심리적소진을 적게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심리적소진, 조직몰입은 인간의 심리상태라는 관점에서 각 변인들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한 변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관계라 할 수 있다(김영은, 2012). 특히 보육교사의 조직에 몰입하는 태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져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해보아야 한다(강영숙, 2014).

지금까지 이루어진 보육교사의 조직몰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원장의 리더십(고현, 2015; 오승란, 박옥임, 문희, 2011; 정소라, 이경님, 2016; 정혜영, 김윤희, 2018; 함소영, 이춘자, 2020)과 관련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개인적 변인과 관련하여 교사효능감(김동현, 이선미, 2017; 신현정, 2019; 하수연, 2014), 전문성, 직무스트레스(박지영, 한문성, 2018; 이은혜, 안지령, 2018), 정서지능(심경희, 부성숙, 2013) 등과 함께 살펴보기도 하였으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보육교사가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 관리하여 보육교사로서 자긍심 고취와 질적 수준을 높이고,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교사를 돕는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 조직몰입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J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으로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보육교사들의 동의를 얻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심리적소진,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연구자가 우편발송, 직접 배부·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3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75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설문에 대한 누락 등 불성실한 응답을 한 17부를 제외한 총 358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58)

기준	구분	M(%)	기준	구분	M(%)
연령	25세 이하	29 (8.1)	최종 학력	고등학교졸업	10 (2.8)
	26세~30세	54 (15.1)		2~3년제 졸업	204 (57.0)
	31세~35세	40 (11.2)		4년제 졸업	132 (36.9)
	36세~40세	72 (20.1)		대학원이상	12 (3.4)
	41세 이상	163 (45.5)		기타	0 (0.0)
근무 경력	1년 미만	27 (7.5)	재직기관 유형	국·공립	98 (27.4)
	1년~3년 미만	51 (14.2)		법인단체	81 (22.6)
	3년~5년 미만	66 (18.4)		직장	5 (1.4)
	5년~7년 미만	52 (14.5)		가정	36 (10.1)
	7년 이상	150 (41.5)		민간	138 (38.5)
담당연령	기타	12 (3.4)	결혼여부	미혼	110 (30.7)
	만0세	34 (9.5)		기혼	248 (69.3)
	만1세	93 (26.0)			
	만2세	101 (28.2)			
	만3세	55 (15.4)			
	만4세	30 (8.4)			
	만5세	45 (12.6)			

2. 연구도구

1) 감정노동 척도

보육교사 감정노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ilstrap(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ELS(Emotional Labor Scale)를 근거로 이진화(2007)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개 하위영역인 ‘표면적 행동’, ‘내면적 행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표면적 행동’ 요인에 관한 문항이 8문항, ‘내면적 행동’ 요인에 관한 문항은 7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면적 행동 .85, 내면적 행동 .81, 전체 신뢰도 .77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 감정노동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하위요인의 내용	문항 수	신뢰도(a)
표면적 행동	조직의 감정표현규칙을 외현적으로 표현하지만 내면적인 감정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감정노동	8	.85
내면적 행동	조직에서 요구하는 정서적 표현규칙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실제적 감정까지 조절하여 동일시하고 외현적으로 표현하는 것	7	.81
전체		15	.77

2) 심리적소진 척도

보육교사의 심리적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aslach & Jackson(1981)이 개발하고 이민선(2015)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서적 고갈’에 관한 문항이 9문항, ‘비인간화’ 5문항, ‘성취감 감소’ 8개 문항을 포함한 3개 영역에 총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적 고갈은 .91, 비인간화는 .84, 성취감 감소는 .82, 전체 신뢰도 .92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 심리적소진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보육교사의 심리적소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하위요인의 내용	문항 수	신뢰도(a)
정서적 고갈	정서적으로 지쳐 자신의 상태에 대해 과거처럼 지원해주고 싶지 않은 느낌	9	.91
비인간화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부정적이며 냉소적인 태도	5	.84
성취감 감소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것	8	.82
전체		22	.92

3) 조직몰입 척도

조직몰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eyer과 Alen(1991), 김정주(1999), 강신규(2002), 마상진(2004)의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문항을 정미영(2010)이 보육시설에 맞게 용어를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개 하위영역인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서적 몰입’ 8문항, ‘지속적 몰입’ 8

문항, ‘규범적 몰입’ 7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적 몰입 .84, 지속적 몰입 .83, 규범적 몰입 .84, 전체 신뢰도 .92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 조직몰입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보육교사의 조직몰입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하위요인의 내용	문항 수	신뢰도(a)
정서적 몰입	심리적인 애착을 의미(직장에서 느끼는 개인의 소속감에 관한 내용)	8	.84
지속적 몰입	조직을 떠나지 않으려는 성향(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이유에 관한 내용)	8	.83
규범적 몰입	조직이 주는 이익에 관계없이 조직에 남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직장에서 의 헌신에 대한 가치와 신념에 관한 내용)	7	.84
전체		23	.92

3. 연구절차

1) 예비 조사

본 조사에 앞서 보육교사들의 문항 이해도와 응답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 5월 전라남도 M군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에 대한 동의의사를 구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기 위한 문항의 가독성, 오타 등을 검토,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라남도에 소재한 어린이집 재직 중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으로 연구목적과 실시방법, 회수기간에 대해 설명한 후 우편발송과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는 신뢰도 계수(Cronbach 's a)를 구하

였고,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심리적소진, 조직몰입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 조직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심리적소진, 조직몰입에 대한 기술통계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심리적소진, 조직몰입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표 5>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심리적소진, 조직몰입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하위요인	<i>M</i>	<i>SD</i>
감정노동	표면적 행동	3.17	.69
	내면적 행동	3.93	.48
	감정노동 전체	3.53	.42
심리적소진	정서적 고갈	2.56	.71
	비인간화	1.79	.61
	성취감 감소	2.14	.47
	심리적소진 전체	2.23	.50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3.58	.55
	지속적 몰입	2.94	.63
	규범적 몰입	3.26	.64
	조직몰입 전체	3.26	.52

<표 5>와 같이,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전체 평균 점수는 3.53(*SD*=.42)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소별로 살펴보면, 내면적 행동(*M*=3.93, *SD*=.48)이 높게 나타났고, 표면적 행동(*M*=3.17, *SD*=.6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적소진 전체 평균 점수 2.23(*SD*=.50)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소 중 정서적 고갈 (*M*=2.56, *SD*=.7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취감 감소(*M*=3.88, *SD*=.60), 비인간화(*M*=1.79, *SD*=.6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끝으로 조직몰입의 전체 평균 점수는 3.26(*SD*=.52)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몰입(*M*=3.58, *SD*=.5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규범적 몰입(*M*=3.26, *SD*=.64), 지속적 몰입(*M*=2.94,

($SD=.63$) 순으로 나타났다.

2. 보육교사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 조직몰입의 상관관계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 및 조직몰입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변인들을 대상으로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 조직몰입 간 상관관계

변수	감정노동		심리적소진			조직몰입		
	표면적 행동	내면적 행동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표면적 행동	1							
내면적 행동	-.040	1						
정서적 고갈	.490***	-.350***	1					
비인간화	.240***	-.480***	.570***	1				
성취감 감소	.140**	-.440***	.440***	.690***	1			
정서적 몰입	-.050	.540***	-.440***	.490***	-.420***	1		
지속적 몰입	.030	.300***	-.180***	-.170**	-.090	.510***	1	
규범적 몰입	-.090	.450***	-.340***	-.360***	-.280***	.640***	.630***	1

* $p < .05$, ** $p < .01$, *** $p < .001$

<표 6>과 같이,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 조직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중 표면적 행동은 심리적소진의 정서적 고갈($r=.49, p<.001$), 비인간화($r=.24, p<.001$), 성취감 감소($r=.14,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적 행동은 심리적소진의 정서적 고갈($r=-.35, p<.001$), 비인간화($r=-.48, p<.001$), 성취감 감소($r=-.44,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조직몰입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중 내면적 행동은 조직몰입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몰입($r=.54, p<.001$), 지속적 몰입($r=.3, p<.001$), 규범적 몰입($r=.45,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심리적소진과 조직몰입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소진 하위요인 중 정서적 고갈과 조직몰입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몰입($r=-.44, p<.001$), 지속적 몰입($r=-.18, p<.001$), 규범적 몰입($r=-.34, p<.001$)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소진 하위요인 중 비인간화는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몰입($r=-.49, p<.001$), 지속적 몰입

($r=-.17, p<.01$), 규범적 몰입($r=-.36,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소진 하위요인 중 성취감 감소는 조직몰입의 하위요인 정서적 몰입($r=-.42, p<.001$), 규범적 몰입($r=-.28,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VIF값은 1.349-2.379 수준으로 나타나 10미만에 해당되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VIF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923	.302		6.363	.000***	
표면적 행동	.086	.039	.115	2.231	.026*	1.349
내면적 행동	.406	.056	.378	7.263	.000***	1.379
정서적 고갈	-.169	.044	-.233	-3.798	.000***	1.909
비인간화	-.112	.058	-.132	-1.928	.055	2.379
성취감 감소	.047	.069	.043	.689	.491	1.968
$R^2 = .308, adjR^2 = .298,$						
$F\text{-value} = 31.333, p = .000$						

* $p<.05$, ** $p<.01$, *** $p<.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30.8%($R^2 = 0.308$)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31.333, p<0.05$).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표면적 행동과 내면적 행동, 심리적소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5$). 반면 심리적소진의 하위요인인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중 표면적 행동, 내면적 행동이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심리적소진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고갈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통계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VIF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66	.300		8.546	.000***	
표면적 행동	.109	.038	.136	2.845	.005**	1.349
내면적 행동	.406	.056	.354	7.310	.000***	1.379
정서적 고갈	-.206	.044	-.266	-4.674	.000***	1.909
비인간화	-.144	.058	-.158	-2.487	.013*	2.379
성취감 감소	-.067	.068	-.057	-0.982	.327	1.968
$R^2 = 0.402, adjR^2 = 0.394,$						
$F\text{-value} = 47.418, p = 0.000$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40.2%($R^2 = 0.402$)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 = 47.418, p < 0.05$).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표면적 행동과 내면적 행동, 심리적 소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 < 0.05$). 반면 성취감 감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중 표면적 행동, 내면적 행동이 높을수록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리적소진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는 높을수록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한 결과, 내면적 행동($t = 7.310$), 정서적 고갈($t = -4.674$), 표면적 행동($t = 2.845$), 비인간화($t = -2.487$) 순으로 파악되었다.

2)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인 지속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통계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VIF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298	.417		3.114	.002**	
표면적 행동	.105	.053	.115	1.969	.050	1.349
내면적 행동	.360	.077	.275	4.665	.000***	1.379
정서적 고갈	-.139	.061	-.158	-2.271	.024*	1.909
비인간화	-.067	.080	-.065	-.838	.403	2.379
성취감 감소	.173	.095	.129	1.826	.069	1.968
R ² = 0.113, Adj.R ² = 0.101,						
F-value= 8.983, p= 0.000						

*p<.05, **p<.01, ***p<.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지속적 몰입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11.3%(R²= 0.113)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8.983, p<0.05).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표면적 행동과 내면적 행동, 심리적소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반면 심리적소진의 하위요인인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중 표면적 행동, 내면적 행동이 높을수록 종속변수인 지속적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리적소진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고갈은 높을수록 종속변수인 지속적 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한 결과, 내면적 행동(t=4.665), 정서적 고갈(t=-2.271), 표면적 행동(t=1.969) 순으로 파악되었다.

3)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인 규범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통계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VIF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901	0.390		4.876	0.000***	
표면적 행동	0.039	0.050	0.041	0.771	0.441	1.349
내면적 행동	0.458	0.072	0.345	6.363	0.000***	1.379
정서적 고갈	-0.159	0.057	-0.178	-2.782	0.006**	1.909
비인간화	-0.127	0.075	-0.121	-1.698	0.090	2.379
성취감 감소	0.034	0.089	0.025	0.387	0.699	1.968
R ² = 0.249, Adj.R ² = 0.238,						
F-value= 23.358, p= 0.000						

** p<.01 ***, p<.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규범적 몰입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24.9%(R²= 0.249)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23.358, p<0.05).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내면적 행동, 심리적 소진의 정서적 고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반면 표면적 행동,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중 내면적 행동이 높을수록 종속변수인 규범적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리적소진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고갈이 높을수록 종속변수인 규범적 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한 결과, 내면적 행동(t=6.363), 정서적 고갈(t=-2.782) 순으로 파악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보육교사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활동은 물론 교육적 방안과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은 내면적 행동(M=3.93, SD=.48)이 높게 나타났고, 표면적 행동(M=3.17, SD=.69)이 평균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권혜진, 2008; 김미숙, 정현정, 허

은경, 2016)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심리적소진은 정서적 고갈($M=2.56, SD=.7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취감 감소($M=3.88, SD=.60$), 비인간화($M=1.79, SD=.61$)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은영, 오선진(2016)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조직몰입은 정서적 몰입($M=3.58, SD=.5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규범적 몰입($M=3.26, SD=.64$), 지속적 몰입($M=2.94, SD=.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심경희, 부성숙, 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심리적소진,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먼저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조직몰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내면적 행동은 조직몰입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조직몰입에서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내면적 행동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지영(2019)의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보육교사의 내면적인 행동으로 긍정적인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하여 성취감을 이루도록 돕는다는 최윤정(2018)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이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가 실제로 경험하는 진짜 느낌이나 감정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관리와 조절에 초점을 두어 가짜 감정을 표현하는 정서적 불일치를 수반하는 표면적 행동(김수연, 2015)보다 표현해야 하는 정서와 실제 정서를 일치하도록 보육교사가 실제 정서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고 일컫는 내면적 행동(임영미, 2016)을 많이 할수록 조직에 더 많이 몰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심리적소진과 조직몰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심리적소진 하위요인 중 정서적 고갈과 조직몰입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소진 하위요인 중 비인간화는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소진 하위요인 중 성취감 감소는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소진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낮아진다고 밝힌 박정임(2017)의 연구와 일치하며, 직무스트레스가 증가되면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소진은 증가하고, 조직몰입은 감소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이종각, 2013; 임지은, 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심리적소진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두 변인이 모두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30.8%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표면적 행동, 내면적 행동과 심리적소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이 조직몰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내면적 행동, 정서적 고갈, 표면적 행동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노동의 하위변인인 표면적 행동과 내면적 행동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박지영, 한문성(2016)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으나, 민하영(2010)과 김기숙(2017)은 정서노동 중 표면적 행동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면적 행동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스스로가 느끼는 실제 감정까지 통제하고 동일시하여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감정 상태를 말하는 감정노동의 하위변인인 내면적 행동이 조직몰입에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원형, 신강현, 허창구, 이종현, 2007).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보육교사의 조직몰입에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심리적소진의 하위요인이 정서적고갈이 낮을수록 조직몰입에 높게 나타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이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몰입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은 조직몰입에 있어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으며,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소진을 적절히 잘 해소할 수 있도록 각 개인 차원의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사회적지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에 긍지와 소속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근무하도록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보육교사의 감정을 슬기롭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정조절 프로그램과 힐링프로그램 개발 및 기회 확대, 치유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홍성희, 2019), 과다한 업무에서 벗어나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 보육현장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와 어린이집의 보육현장에서 연구결과 활용을 위한 제한점과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J도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의 한계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만을 이용하여 교사의 자료를 수집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내에서의 생활을 관찰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교사의 감정상태 등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 연구를 다각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강영숙(2014). 어린이집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무 만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상, 류경희(2016). 유아교사의 여가활동과 감정노동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6(2), 105-117.
- 고광혁(2011). 학교장의 서번트 리더십, 교사효능감, 학교조직몰입 및 학교조직효과성 간의 관

- 계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현(2015).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보육교사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1), 5-28.
- 권혜진(2008).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소진: 정서적 부조화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인간발달연구**, 15(4), 93-113.
- 김기숙(2017). 어린이집교사의 정서노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현, 이선미(2017).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행복감을 매개효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3), 231-254.
- 김미숙, 정현정, 허은경(2016).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행복의 관계: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00, 151-175.
- 김송이(2015). 보육교사의 경력 및 소진과 놀이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481-799.
- 김영은(2012).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소진과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8), 57-76.
- 김원형, 신강현, 허창구, 이종현(2017). 정서노동과 직무탈진. **한국심리학회지**, 12(4), 905-921.
- 김은숙, 오현경(2013). 보육교사의 심리적소진과 전문성 인식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의 관계 연구. **한국한부모가정학회**, 6(1), 27-48.
- 김영숙, 정명선(2014).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3), 1424-1435.
- 문은영, 오선진(2016).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3), 177-195
- 민하영(2010).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 및 동료교사/원장의 정서적 지지가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아동보육학회지**, 14(3), 387-399.
- 박정임(2018). 유아교육기관 중간관리자의 감정 리더십과 유아교사의 소진,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간의 구조적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영, 한문성(2018). 어린이집교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경영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 591-615.
- 배성희, 김연화, 한세영(2014).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8(1), 234-258.
- 신현정(2019). 영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민감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9(1), 101-115.
- 심경희, 부성숙(2013).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경력몰입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2), 540-549.
- 오승란, 박옥임, 문희(2011). 보육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 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22(1), 181-194.
- 유미나, 신나리(2013). 보육교사의 소진과 관련된 직무만족도와 직장 내 사회적 지지. **생애학회지**, 3(2), 73-85.
- 윤혜미, 노필순(2013).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경력몰입, 소진과 이직의도 간 관계. **한국아동복지학회지**, 43, 157-184.
- 이라나(2003).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안지령(2018).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219-238.
- 이종각(2013). 어린이집 교사가 지각한 보상인식, 정서노동,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 구조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영(2016).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화(2007).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개인 및 기관의 정서변인, 직무만족도,소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영미(2016). 어린이집교사의 정서지능, 정서노동, 정서표현성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은(2018).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수효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진, 윤혜미(2016).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및 이직의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6, 129-152.
- 정덕희(2015). 보육교사의 소진에 대한 이야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2), 77-99.
- 정명선(2014).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의 완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6(1), 147-166.
- 정소라, 이경님(2016). 원장의 코칭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1(4), 225-224.
- 정혜영, 김윤희(2018). 어린이집 원장의 코칭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9), 1087-1108.
- 조윤성, 홍아정(2016).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감성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간 구조적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33(2), 337-366.
- 차정주, 이효림(2015). 유아교사의 소진과 정서노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2), 375-393.
- 최윤정(2018).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수연(2014).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과 조직사랑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

학, 84, 235-257.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감정노동의 직업별 실태.

함소영, 이춘자(2020). 어린이집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교사의 자아존중감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5(1), 5-21.

홍성희(2019).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감정노동과 소명의식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 *동아인문학*, 47, 29-56

황혜정(2019). 유아교사의 감정노동 인식 및 직무스트레스, 전문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delman, P. K. (1995). Emotional labor as a potential source of job stress. In S. L. Sauter & L. R. Murphy (Eds.), *Organizational risk factors for job stress* (pp. 371-381). Washington, DC: Angle, H. L. & Pery, J. L. (1983). Organizational commitment: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influences. *Work and Occupations*, 10(2), 123-14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rown, L. A. & Roloff, M. E. (2011). Extra-role time, burnout, and commitment: The power of promises kept. *Business Communication Quarterly*, 74(4), 450-474.

Gilstrap, C. M. (2005). *Closing in on closeness: Teacher immediacy a form of emotion lab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orado State University, Colorado, Spring.

Maslach, C. & Jackson, S. E. (1981). *Maslach burnout inventory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Morris, J. A. & Feldman, D. C. (1996). The dimens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4), 986-1010.

Pine, A. M. & Aronson, E. (1998). *Career Burnout: Causes and Cures*, New York: Free Press.

Schonfeld, I. S. (2001). Stress in first-year women teachers: The context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7, 7547-8156.

Whitebook, M. & Granger, R. C. (1989). Mommy, who's going to be my teacher today?: Assessing teacher turnover. *Young Children*, 44(4), 11-14.

Yong, Z. & Yue, Y. (2007). Causes for burnout among secondary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preventive strategies. *Chinese Education & Society*, 40(5), 78-85.

ABSTRACT

Study on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ang, SungOk

Ahn, JeeHy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ing teachers' emotional labor and psychological burn-ou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f 358 childcare teachers in the area of J.

The data collected for the analysis of the study were based on the SPSS WIN 25.0 program,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measur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measure influenc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ner behavior, which is a subordinate factor of the teacher's emotional labor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ll subordinate factor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otional burn-out and dehumanization, which is a subordinate factor of childcare teacher showe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all subrodinate factor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duction of accomplishment, which is subordinate factor of psychological burn-out showe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immersion and normative immers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the emotional labor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childcare teacher showed significant affect on organization immersion. These research results, as the basic information, supports to find practical measurement for organizational immersion through the personal level supports to reduce emotional labor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childcare teacher and the social level supports to improve working environment.

Key Words: childcare teacher, emotional labor, psychological burn-out, organizational commitment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송 영 애*, 이 유 미**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충남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 각각 403명이다. 측정도구는 사회정서 발달 척도, 모-영아 간 상호작용 척도, 어린이집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수준은 영아의 연령, 성별, 어머니 학력,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모든 하위요인과, 모-영아간 상호작용 중 어머니의 언어적 모델링 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간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중 사회적 관계 능력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기 위해 사회정서 발달 능력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어린이집 적응,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모-영아 간 상호작용

· 논문접수: 2021. 04. 30 / 수정본접수: 2021. 06. 05 / 게재승인: 2021. 06. 11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해뜰어린이집 원장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교신저자: sizuku@gachon.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기존 부모들이 주된 자녀양육 역할을 담당하던 데에서 국가의 공동 책무로서 여겨지며 자녀 양육의 역할을 상당부분 어린이집이 담당하게 되었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영아 발달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승아, 2018; 정지혜·서영민, 2017). 영아들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은 새로운 환경에 기대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 존중감과 친 사회성의 형성을 통해 전인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장은미, 2008). 이렇듯 영아에게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은 영아기 이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영아가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자신의 특성과 욕구를 맞추며 적응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더욱이 보육기관의 이용은 영아 자신의 의지로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아들의 경우 어린이집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임명희, 강성희, 2007). 이같은 어려움은 적응과정에서 영아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의산만, 회피 또는 과잉행동, 공격적 태도 등의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명주, 2011; 양숙경, 2010). 따라서 영아의 적응을 위해서는 교사의 개별 영아에 대한 개인적 발달특성을 파악 및 하루일과 안에서 나타나는 영아들의 모습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영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학기 말이 되어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영아들이 있어, 영아들과 이들의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영아의 후기 기관적응을 돕는 영아와 어머니의 변인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변인(이미희, 2010; 이병은, 2003; 이현경, 2002; 한재영, 2012)으로 간주된다. 이는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의 밀접한 관계속에서 나온 개념으로 사회 속에서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고 상호이해를 전제로 한 사회적 교류를 수행해 나가는데 갖추어져야 할 능력이다(Saarni, 1999). 사회정서 발달은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동의 근간이 되므로 영아기에 있어 주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나양균, 2006).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상태가 긍정적일수록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수평적이고 그 빈도가 활발할수록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김경은, 2011; 장은혜, 이동귀, 2014). 따라서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영향은 영아의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아는 어머니와 영아 간 관계 속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발달해간다. 특히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어머니의 양육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영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자녀의 반응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의 애착안정성, 수용성, 자기조절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갑순, 박운조, 2016). 따라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특성은 영아 자녀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수용과 집단 보육생활에 필요한 자기조절능력을 키워줄 수 있으므로 영아 어린이집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어머니와 영아 간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이후 청소년기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성격특성은 세대를 전이하여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임우경, 2013).

하지만 어머니 관련 영아 상호작용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아기의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 이후의 영아의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4).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발달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모색을 위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영아기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영아자녀의 어린이집 부적응을 완화시키는 교육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연구대상자 개인 변인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4.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남지역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0-2세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 403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3주간 설문을 진행하였다. 520부를 배포하여 407부를 수거하고 최종 403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403)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영아성별	남아	212	52.6	영아출생 순위	첫째	193	47.9
	여아	191	47.4		둘째	160	39.7
영아연령	만 2세	167	41.4		셋째	39	9.7
	만 1세	159	39.5		넷째	4	1.0
	만 0세	77	19.1		쌍둥이	7	1.7
영아재원 시간	8시간 미만	302	74.9	모 연령	20대	17	4.2
	8시간 이상	101	25.1		30대	300	74.4
모 학력	고등학교 졸업	74	18.4		40대	84	20.8
	대학(교) 졸업	279	69.2		50대	2	0.5
	대학원 졸업	50	12.4		모 취업여부	취업	241
영아가정 수입	300만원 미만	56	13.9	비취업		162	40.2
	400만원 미만	133	33.0				
	500만원 이상	214	53.1				

2. 연구도구

1)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측정은 김호인(2010)이 제작한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교사가 평정하는 것으로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 자아개념, 자기조절과 인지조절, 사회적 관계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문항 수는 39개이며 각 문항은 영아 사회성 발달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하위영역에 따른 문항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수	신뢰도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	주변상황에 대해 호기심과 두려움, 흥미를 느끼고 이를 교사와 또래 친구들에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행동	7	.67
자아개념	나를 지칭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능력을 묘사하는 행동	7	.87
자기조절과 인지조절	기본생활을 습관을 지키고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키며 친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행동	16	.90
사회적 관계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이하고 교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행동	9	.88
전체		39	.95

2) 모-영아 간 상호작용

모-영아 간 상호작용 설문지는 Abbott-Sibely(1987)에 의해 개발된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APECP)을 토대로 어머니와 영아 자녀 간의 상호작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김현희(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어머니가 평정하는 것으로 긍정적 상호작용, 양육자의 언어적 모델링,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양육자의 긍정적 태도, 민감한 반응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문항 수는 32개이며 각 문항은 모-영아 간 상호작용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설문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 자녀에 대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모-영아 간 상호작용 하위영역에 따른 문항과 신뢰도는 <표 3> 과 같다.

<표 3> 모-영아 간 상호작용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수	신뢰도
긍정적 상호작용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주변을 탐색하고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며 모델링의 역할을 하는 행동	5	.81
양육자의 언어적 모델링	자녀와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말로써 안내하고 격려하는 행동	4	.73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자녀가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 놀이를 하고 이름을 자주 불러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이름을 부르도록 격려하는 행동	5	.74
양육자의 긍정적 태도	자녀에게 부정적인 언어사용을 피하고 능동적으로 주위를 탐색하고 조용히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잘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는 행동	5	.75
민감한 반응	자녀에게 신체적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고 자녀가 우연히 새로운 언어표현을 했을 때 격려하는 행동	13	.86
전체		32	.94

3) 어린이집 적응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Jewsuwan, Luster와 Kostelink(1993)가 개발한 PAQ(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를 오종은(2001)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교사가 평정하는 것으로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자아강도, 일과에 대한 적응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문항 수는 30개이며 각 문항은 영아의 적응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지의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하위영역에 따른 문항과 신뢰도는 <표 4> 와 같다.

<표 4>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수	신뢰도
친사회적행동	친구나 선생님에게 관심있는 행동을 보이고 기분 나빠할 때 관심을 표현하고 행동을 모방하는 행동	4	.79
긍정적 감정	자기 의사를 몸짓이나 말로 표현하고 활기 있고 친절하며 편안해 보인다.	7	.75
또래관계	친구들과 놀잇감을 가지고 놀거나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	6	.75
자아강도	자신감이 있고 독립적으로 탐색하고 자기주장을 하고 쉽게 포기하지않는 행동	4	.87
일과에 대한 적응	하루일과를 이해하고 일과 중 대체로 교사에게 협조적이고 새로운 환경에 불안해하지 않는 행동	9	.79
전체		30	.93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 개인 변인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수준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수준

<표 5> 모-영아 간 상호작용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사회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	1.57	5.00	3.64	.55
	자아개념	1.00	5.00	3.79	.79
정서	자기조절과 인지조절	1.00	4.81	3.28	.70
발달	사회적 관계	1.22	5.00	3.79	.67
	전체	1.15	4.74	3.56	.60

<표 5>와 같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수준 평균은 3.56점($SD=.60$)이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자아개념 평균 3.79점($SD=.79$), 사회적 관계 평균 3.79점($SD=.67$)로 비교적 높았고,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 평균 3.64점($SD=.55$), 자기조절과 인지조절 평균 3.28점($SD=.70$) 순으로 상대적으로 나타났다.

2) 모-영아 간 상호작용 수준

<표 6> 모-영아 간 상호작용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모-영아간	긍정적 상호작용	2.20	5.00	4.02	.59
	양육자의 언어적 모델링	2.50	5.00	4.27	.52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2.20	5.00	3.83	.57
상호작용	양육자의 긍정적 태도	2.60	5.00	4.02	.56
	민감한 반응	2.69	5.00	4.03	.46
전체		2.72	5.00	4.03	.45

<표 6>과 같이, 모-영아 상호작용 수준은 평균 4.03점($SD=.45$)이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양육자의 언어적 모델링이 평균 4.27점($SD=.52$)으로 가장 높았고, 민감한 반응은 평균 4.03점($SD=.46$), 긍정적 상호작용은 평균 4.02점($SD=.59$), 양육자의 긍정적 태도 평균 4.02점($SD=.56$),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이 평균 3.83점($SD=.57$)순으로 나타났다.

3)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수준

<표 7> 영아 어린이집 적응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어린이집 적응		친사회적 행동	1.00	5.00	3.51	.74
		긍정적 감정	1.86	5.00	3.77	.60
		또래관계	1.00	5.00	3.50	.68
		자아강도	1.00	5.00	3.69	.76
		일과에 대한 적응	2.22	5.00	3.91	.53
		전체	1.73	4.87	3.73	.50

<표 7>과 같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수준은 평균 3.73점($SD=.50$)이다. 하위변인별 일과에 대한 적응이 평균 3.91점($SD=.53$)으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 감정이 평균 3.77점($SD=.60$), 자아강도 평균 3.69점($SD=.76$), 친사회적 행동 평균 3.51점($SD=.74$), 또래관계 평균 3.50점($SD=.68$)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 개인 변인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수준 차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수준이 연구대상자 개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개인변인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수준 차이

($N=403$)

		영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F
영아 성별		남	198	3.65	.53	-3.117**
		여	177	3.81	.45	
영아 연령		만2세①	157	3.89	.48	16.290*** ①>②③
		만1세②	146	3.63	.51	
		만0세③	72	3.56	.43	
어머니 취업		취업	221	3.78	.50	2.214*
		비 취업	152	3.66	.51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①	68	3.57	.47	4.113* ①<②
		대학(교) 졸업 ②	260	3.76	.50	
		대학원졸업 ③	47	3.78	.52	

* $p < .05$, ** $p < .01$, *** $p < .001$

<표 8>과 같이 영아와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전반적인 수준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영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영아의 성별($t=-3.117, p<.01$), 연령($F=16.290,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의 어린이집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cheffe 사후검증 결과 2세가 1세나 0세보다 어린이집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취업($t=-2.214, p<.05$)과 학력($F= 4.113, p<.05$)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한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학력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어린이집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 특히 어머니 학력에 있어 대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 간 영아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모-영아 간 상호작용, 어린이집 적응 간 관계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어린이집 적응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 관계	자아 강도	일과에 대한적응	어린이집 적응전체	
사회정서 발달	기본정서 및 사회적행동	.649**	.418**	.452**	.369**	.344**	.564**
	자아개념	.558**	.400**	.439**	.395**	.369**	.528**
	자기조절과 인지조절	.675**	.534**	.663**	.316**	.482**	.670**
	사회적관계	.753**	.652**	.607**	.556**	.626**	.800**
	사회정서전체	.764**	.586**	.661**	.442**	.529**	.746**
모·영아간 상호작용	긍정적상호작용	.018	.031	-.041	.066	.034	.017
	양육자의 언어적모델링	.128*	.070	.029	.106*	.072	.094
	사회적상호작용 증진	.077	.090	-.016	.077	.077	.077
	양육자의 긍정적태도	.038	.036	-.039	.036	.043	.035
	민감한반응	.052	.038	-.033	.076	.038	.030
상호작용전체	.069	.064	-.025	.096	.064	.061	

* $p<.05$, ** $p<.01$, *** $p<.001$

<표 9>와 같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린이집 적응 전체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746,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변인들인 친사회적행동($r=.764, p<.01$), 긍정적 감정($r=.586, p<.01$), 또래관계($r=.661, p<.01$), 자아강도($r=.442, p<.01$), 일과에 대한 적응($r=.529, p<.01$)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의 하위요인들과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의 하위변인인 기본정서 및 사회적행동은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변인들인 사회적행동($r=.649, p<.01$), 긍정적 감정($r=.418, p<.01$), 또래관계($r=.452, p<.01$), 자아강도($r=.369, p<.01$), 일과에 대한 적응($r=.344, p<.01$) 및 어린이집 적응 전체($r=.564,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 또한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변인들인 사회적행동($r=.558, p<.01$), 긍정적 감정($r=.400, p<.01$), 또래관계($r=.439, p<.01$), 자아강도($r=.395, p<.01$), 일과에 대한 적응($r=.369, p<.01$) 및 어린이집 적응 전체($r=.528,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과 인지조절 또한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변인들인 사회적행동($r=.675, p<.01$), 긍정적 감정($r=.534, p<.01$), 또래관계($r=.663, p<.01$), 자아강도($r=.316, p<.01$), 일과에 대한 적응($r=.482, p<.01$) 및 어린이집 적응 전체($r=.670,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변인들인 영아 사회정서 발달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관계 또한 앞의 변인들과 같이 사회적행동($r=.753, p<.01$), 긍정적 감정($r=.652, p<.01$), 또래관계($r=.607, p<.01$), 자아강도($r=.556, p<.01$), 일과에 대한 적응($r=.626, p<.01$) 및 어린이집 적응 전체($r=.800,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영아 간 상호작용과 어린이집 적응 전체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하위변인 중 특히 어머니의 언어적 모델링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변인인 친사회적 행동($r=.128, p<.05$)과 자아강도($r=.106, p<.05$)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이 어린이집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측정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통계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연구문제 2를 통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영아와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변인(영아의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학력)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 분산팽창계수(VIF)값이 1.01~3.25 사

송영애, 이유미 /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로 5보다 낮게 나타났고, 공차는 308~.991 사이로 1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적으며, Durbin-Watson 값은 1.459이고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의 위험이 낮아 회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전체에 미치는 영향

모형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인구 사회 학적 변인	성별(여자아이)	.145	.143**	-.033	-.032	-.032	-.031
	영아연령	-.204	-.299***	.030	.044	.025	.036
	어머니 학력	.074	.082	.025	.027	.026	.029
변인	취업여부	.135	.131**	.009	.009	.003	.003
사회 정서 발달	기본정서 및 사회적행동			.116	.122**	.112	.119**
	자아개념			-.133	-.206***	-.136	-.212***
	자기조절과 인지조절			.173	.235***	.170	.232***
	사회적관계			.558	.728***	.560	.731***
모 영아 상호 작용	긍정적 상호작용					-.018	-.021
	양육자의 언어적모델링					.013	.014
	사회적 상호작용증진					.051	.058
	양육자의 긍정적태도					.036	.039
	민감한반응					-.054	-.049
<i>F</i>		10.503***		83.002***		53.399***	
<i>R</i> ² Δ <i>R</i> ²		.133(.120)		.688(.680)		.692(.679)	
<i>R</i> ² 변화량		.133		.555		.003	

* $p < .05$, ** $p < .01$, *** $p < .001$ (더미변수: 성별 남자 0, 여자 1, 어머니의 취업은 1, 비 취업 0)

<표 10>과 같이 모델 I에서는 영아와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영아의 성별, 연령, 어머니 학력, 취업유무)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아의 성별, 연령,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F=10.503$, $p < .001$). 이들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영아의 연령($\beta = -.299$, $p < .001$), 성별($\beta = .143$, $p < .01$), 어머니의 취업 여부($\beta = .131$, $p < .01$) 순이었으며, 13.3%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는 모델 I에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의 모든 하위변인, 즉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beta = .122$, $p < .01$), 자아개념($\beta = -.206$, $p < .001$), 자기조절과 인지조절($\beta = .235$, $p < .001$), 사회적 관계($\beta = .728$, $p < .001$)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F=83.002$, $p < .001$). 이들 변인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중 사회적 관계

($\beta=.728, p<.001$), 자기조절과 인지조절($\beta=.235, p<.001$), 자아개념($\beta=-.206, p<.001$), 기본정서 및 사회적 발달($\beta=.122, p<.01$)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특히 사회적 관계($\beta=.728, p<.001$), 자기조절과 인지조절($\beta=.235, p<.001$), 기본정서 및 사회적 발달($\beta=.122, p<.01$)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자아개념($\beta=-.206, p<.001$)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II는 모델I의 변인들이 함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68.8%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I는 모델 I보다 55.5%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모델 III은 모델 II에 영아 모-영아 간 상호작용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 전체는 미비하지만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3.399, p<.001$). 모델III은 69.2%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I에 보다 0.3%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어머니와 영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영향을 제외한 상태에서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55.8%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사회정서 발달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 어린이집 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그 결과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자아개념과 사회정서 발달 사회적 관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 자기조절과 인지조절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김혜영(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나, 본 연구결과와 경우 정서조절은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 수준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양육자의 언어적 모델링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민감한 반응, 긍정적 상호작용, 양육자의 긍정적 태도,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통해 영아는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책을 읽어주는 말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이해한다(김현희, 2008). 그만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적응 수준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일과에 대한 적응이 가장 높았고, 또래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변인인 하루일과 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윤정민(2018)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또래관계가 가장 낮다는 본 연구결과는 영아들이 아직은 어린 연령이라 또래관계를 맺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 개인 변인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아의 성별에 따라 적응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영아기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잘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송애란 외, 2015; 엄일숙, 2013; 정덕희, 2009; 오중은, 2001). 여아가 남아보다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본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관계에서 더 적응을 잘하며, 여아가 남아에 비해 상황파악을 더 잘하고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보다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아반 교사들은 남아 영아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의 적응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실시할 때 성별에 따른 다양한 적응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2세가 0, 1세보다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영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사회정서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송애란, 송승민, 이사라, 2015; 이현숙, 조혜진, 2009) 중 또래관계 및 일과에 대한 적응 부분에서만 연령차이가 나타난 선행연구(류경, 2000; 오중은, 2001; 전미경, 2003)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영아의 월령 및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행동, 영아의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가 안정되어 어린이집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른 연령의 영아의 경우 부모의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개별 영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이용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교사에게는 가정과 같은 안정된 환경에서 영아들의 호기심이 충족되어지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생활 중 개별 영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관찰을 통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같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일관성 있는 돌봄을 위해 가정과 교사, 기관은 협력 관계로 소통을 통하여 서로를 믿고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머니 직장 유무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서는 취업 어머니 가정의 영아들이 비취업 어머니 가정의 영아보다 어린이집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결과(박은애, 2012; 김기홍, 2009; 장성덕, 2007)와 일치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의 규칙적인 생활은 자연스럽게 영아에게도 습득이 되어 어머니와 영아 간 분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생활방식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취업모의 영아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어린이집에서 지내므로 어린이집 내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길고 환경을 탐색하는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있어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어린이집 적응 하위요인에서 일과에 대한 적응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어머니의 영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머니의 영아보다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결과(김현자, 2010)와 맥락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어머니 학력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김유환, 2011; 김유환, 2015). 이러한 결과는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 높아(박진아, 2020) 영아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 시에도 어머니의 적극적인 기관 적응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셋째, 본 연구의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어린이집 적응 전체 및 모든 하위요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과 어린이집 적응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김혜영(2015), 박미란(2017)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정서 발달의 하위변인과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변인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이 늘어나면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 관계 및 자아강도와 일과에 대한 적응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모델링이 많을수록, 영아가 사회정서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가 어린이집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회정서 발달이 발달할수록, 특히 사회적 관계 능력이 발달할수록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적응이 양호하나 자아개념의 경우, 오히려 발달할수록 어린이집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영아 보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자아가 강한 영아들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 하위변인인 양육자의 언어적 모델링이 영아의 적응 하위변인인 자아강도에서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영아에게 많은 언어적 모델링을 하면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언어습관을 영아가 모방 학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해보았다. 이를 위하여 영아의 성별, 연령,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통제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와 영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영향을 제외한 상태에서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 의한 정도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55.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모-영아 간 상호작용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요인인 친사회적 행동 (53.8%), 긍정적 감정 (38.7%), 또래관계 (36.6%), 자아강도 (31.5%), 일과에 대한 적응 (36.5%)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하위변인인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 자아개념, 자기조절과 인지조절,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모두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설명하는 매우 결정적인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정서 발달은 어린이집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정서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능력이 높고,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박미란,

2017; 오종은, 2001)와 일치한다. 모-영아 간 상호작용의 경우, 특별히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없으나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연령 하향화와 장시간 보육의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고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영아변인과 어머니변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기 위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능력의 중요성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예컨대 어머니가 가정에서 영아자녀와 많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며 언어적 모델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활동을 개발, 실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기는 1월 중이며 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하여 주로 초기 적응을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시기의 적응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보다 심도하게 살펴보기 위해, 자료수집의 시기를 학년 초와 학년 중, 학년 말 등 각 시기별로 영아의 적응 정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린이집 적응 정도를 담임교사가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담임교사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되어 평정자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에는 발달 전문가에 의해 보다 객관적인 측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끝으로, 최근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양상을 질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도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곽금주, 김민화, 한은주(2004).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아기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한국아동학회지**, 111-128.
- 김갑순, 박윤조(2016).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3), 27-44.
- 김경은(201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17.
- 김기홍(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 및 조화적합성이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환(2011). 어머니-교사관계가 유아-교사관계 및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환(2015).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관련변인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희(2008). 보육시설-가정연계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이 영아의 읽기 흥미도와 의사소통능력 및 모-영아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자(2010). 일반적 배경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적응. **영유아교육연구**, 13, 83-100.
- 김혜영(2015).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정서조절 능력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인(2010). 2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평정척도 개발. 덕성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나양균(2006). 영아의 사회·정서능력과 기질 및 애착 간의 관계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경(2000). 보육시설 초기적응과정의 영아 행동 특징과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란(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애(2012). 유아의 기질 및 놀이성과 유아교육기간 적응과의 관계.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2020). 군집분석을 활용한 아동 및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열린부모교육연구**, 12(1), 1-19.
- 송애란, 송승민, 이사라(2015). 영아의 기질, 교사의 민감성 및 어머니의 분리불안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5(1), 37-53.
- 양숙경(2010).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만1·2세반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엄일숙(2013). 영아의 성별 및 기질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종은(2001).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민(2018). 교사 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주(2011). 교사-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재원경험에 따른 만 2세 영아의 놀이성과 어린이집 적응.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전인옥(2020). 영아의 성, 연령, 사회정서발달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 27**, No.2 193-213.
- 이미희(2010). 어머니의 양육 태도 및 영아의 개인변인과 어린이집 초기 적응 간의 관계. 경

- 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은(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초기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주, 오신영(2014). 유아의 자아개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간의 관계.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Vol. 19** No.1 343 - 362 (20 pages)
- 이현경(2002).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 논문집, 20(2), 255-272.
- 임명희, 강성희(2007). 만 1세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관한 소규모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7(4), 1-32.
- 임민영, 이강이(2020). 영아의 기질과 교사가 지각한 영아-교사 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제40권 제2호, 225-245
- 임우경(2013). 부모-자녀관계문제 유아와 일반 유아의 어머니 상호작용 특성 분석.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덕(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취업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은미(2008). 영아의 기질, 조기교육경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초기적응에서의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혜·이동귀(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74, 5-38.
- 정덕희(2009). 유아의 교사, 또래관계와 유아교육기관 일과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 352-362
- 한재영(2010). 유아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사회성발달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Guilford Press.

ABSTRACT

Impact of infant'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d the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infant on Infant adaptation to Daycare center

Song, Young Ae , Lee You 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fants'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on daycare adapt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03 infants and their mothers each residing in daycare centers in Seoul, Gyeonggi and Chungnam. The measurement tools used were the social-emotional development scale,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scale, and the daycare adaptation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adaptation of infants to daycare centers differed according to the infant's age, gender, mother's education, and employment status. Second, the infant's adjustment to the daycare cente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ll the sub-factors of infant's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and the mother's verbal modeling factor among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ant's adaptation to the daycare center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infant's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and the mother-to-infant interaction, and the social relationship ability during the infant's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was a decisive factor.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the importance of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ability and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parental education programs to support this were suggested to help infants adapt to daycare.

Key Words : infant adaptation to daycare center Infant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mother-infant interaction

「아동중심실천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연구관련 윤리 규정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의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이중게재"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또는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윤리규정 서약)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의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연구자 윤리) 연구자는 논문의 투고 및 출판 시, 다음 각 호의 연구자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을 인정받는다.
3.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기여 정

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 소속이 변경된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한다.
6.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 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7. 연구논문과 관련된 사항을 각종 인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8. 인간 및 인체유래물의 연구 또는 배아나 유전자 등을 다루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IRB 승인을 권장한다. IRB 승인을 득한 경우 해당 논문에 이를 명기한다.

제6조(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회)은(는) 다음 각 호의 편집위원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은(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등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2. 편집위원(회)은(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함으로써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편집위원회는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 출판시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 윤리)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윤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공정성.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에 의거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사적인 관계에 따라 논문을 통과시키는 행위,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심사자 본인의 학술적 해석과 상충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2. 연구자 존중. 심사위원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로서 연구자의 인격과 학술적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3. 비밀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제8조(연구윤리 요약서 등) 논문 투고 시 대표저자(교신저자 포함)는 논문표절검사 결과와 함께 ‘연구윤리 요약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 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9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2.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해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4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절차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그 회원으로 하여금 문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한다.
2. 제보자는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사무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이 가는 경우 확고한 증거가 없더라도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위반 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 신청, 연구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윤리 검증원칙)

1. 부정행위 사실 여부 입증책임은 본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학회의 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본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판정)

1. ‘판정’은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단, 이 기간 내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문서화하여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20조(결과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 5장 후속조치

제21조(후속조치)

1. 연구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불허
 - ②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 하여 공지
 - ③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 ④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⑤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1항 제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제④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 작성하여 지체없이 관련자(제보자, 피조사자 등)에게 통지한다.

제23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기록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참여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3월 4일 부터 시행한다.